

광주시, 미래 전력망 기술 실증 중심지로 도약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국비 525억원 확보 전기연구원에 직·교류 전환 배전망 구축...신기술 계측·진단

광주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미래 전력계통 실증사업에 선정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인 '차세대 AC(교류)/DC(직류)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미래 전력 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류인 'AC'와 직류인 'DC'를 변환해가면서 전력을 보내는 전력계통을 실증하는 것이다.

광주시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에 차세대 배전망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근 나주지역에 실제 배전망을 활용해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가 개발됐을 당시 직류 전력 전송은 거리가 멀어지면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지만, 교류전력 전송의 경우 각 지역에서 변압기로

전압을 바꿔주기만 하면 사용이 용이해 현재까지가 한국전기 시장을 주도했다.

교류전력 전송은 변압기를 이용해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장거리 송전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직류전력 전송은 전력 손실이 적고 장비 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 충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 저장 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으로 총 사업비는 690억원(국비 525억원, 시비 40억원, 민자)을 올해부터 4년간 지원받게 됐다.

산업부가 2022년부터 개발했던 차세대 배전망 기기 및 운영기술 등 10개 과제의 기술성과를 실제 전력망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는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 본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전KDN,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0개 기관·대학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에 지중 및 가공을 혼합한 AC/DC 배전망을 구축하고 배전기기, 운영기술,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설치해 전력 신기술·기기의 계측·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나주에는 기존 AC배전망을 DC배전망으로 전환해 현장 운영기술과 신뢰성 검증이 진행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광주와 나주 모두 상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실증 인프라로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테스트베드 사업을 토대로 광주를 국가 배전기술 실증 및 상용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실증 인프라를 발전시켜 시험·인증 기능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계절별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력 인프라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 사업은 광주가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라며 "지역 전력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광주 북구 중흥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중흥하·어린이집 원생이 지역 돌봄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케네이션을 전달하고 어르신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79억...“공익비용 국비 지원 절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광주도시철도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이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광주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3억원이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64억원(2021년)→70억원(2022년)→76억원(2023년)→79억원(2024년)으로 증가해 5년 평균 70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광주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사용한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상태·403억원)의 19.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광주도시철도 수송원가(6864원)와 평균운임(1242원)을 고려하면 1인당 손실액은 5622원에 달해 원가대비 평균운임(현실화율)은 18.1%로 나타났다.

결국 자율·책임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통공사는 무임수승 인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무임수승이 법률로 시행된 198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4.1%에 불과했으나 2025년 20.3%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2020년 무임승차 인원은 4342명(노인 3625명·장애인 677명·국가유공자 41명)이었지만, 지난해

에는 5673명으로(노인 4919명·장애인 691명·국가유공자 63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광주교통공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이날 기후위기 및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갖고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탄소중립 도시 속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주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도)도시 추진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조성 사업'의 큰 축인 BRT(Bus Rapid Transit)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하여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

스템을 말한다.

광주시는 광주 남북축에 신속성·정시성 등을 갖춘 BRT를 도입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에 반영된 광주 백운광장(옛 대동고)-농성역-광천사거리-경신역고-광주공고(8.67km)를 잇는 '백운-매곡 BRT' 노선의 개발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신규 노선 발굴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7년 개통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광주시, 시의회, 관할 자치구, 광주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연구원 등 교통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중호 광역교통과장은 "대·자·보 시대를 열어가고 시민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광주시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키운다

1억4000만원 투입...민간 투자 유치·역량강화 등 지원

전남도는 7일 "1억4000만원 규모의 '2025년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액하고, 단순한 교육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실전형 투자유치 훈련 및 기업설명회 역량 강화 등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유망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접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기업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오는 6~8월 중 기업진단, 교육, 멘토링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IR(기업설명회) 예산대회를 통해 선발된 3개 기업에는 최대 4000만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지원사업에 응모한 사회적경제기업들

을 대상으로 IR 대회 이후에도 투자사 1대1 매칭 상담회,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경영전략 멘토링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자우편(sdcenter@insec.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영리법인), 자활기업 등 전남 내 사회적경제기업 20개 내외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간투자 유치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Farm 나누어드림

자원봉사자 모집

Farm 나누어드림이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수확한 농산물 일부를 기부받아 전남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신선식품 제공 및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모집대상

- 농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대학교, 기업, 지역주민 등)
- 동아리 및 대학생 등 (7명 이상)

활동순서

1. 능가 및 봉사자 신청
2. 매칭 및 일정 조율
3. 봉사활동 실시 (활동 전 교육 및 안내사항 전달)
4. 수확물품 기부

참여혜택

활동물품 (장갑, 수건 등) 지원

자원봉사 활동 시 식사 및 간식제공

VMS를 통한 봉사활동 시간관리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가입

신청문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T. 061-283-8477